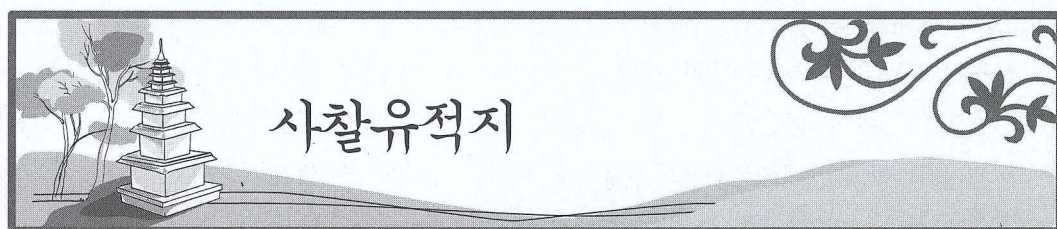


하 남 신



하남시에는 현존하는 전통사찰이 없다. 다만 역사가 오래된 폐사지와 유물·유적이 많이 존재 하고 있다. 하남시의 폐사지는 주로 이성산성과 마주하고 있는 금암산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폐사지로는 법화사지, 자화사지, 신복선사지, 서양사지, 약정사지, 선법사지, 동사지, 천왕사지, 무명사지 등이 남아있어 하남시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조망해 볼 수 있다.

시·군	사찰	위치	현존	유적·유물	비고
하 남 시	약정사지	항동 택마니			
	법화사지	상사창2동 법화골		부도, 석축, 석물, 초석, 기와	
	춘궁동 동사지	춘궁동		오층석탑, 삼층석탑	
	자화사지	항2동		석물	
	하사창동 천왕사지	하사창동		석물, 석조대좌	
	교산동 일명사지 (일명 북단사지)	교산동 283, 322, 323-2번지		석탑재	
	금암산 일명사지 (일명 개두사지)	광암동 산22번지		석축	
	하산곡동 일명사지	하산곡동 산 43-2번지			
	신복선사지	항2동		와편, 도편	
	서양사지	상사창동 샘골		토기편, 와편	
	항동 무명사지	와야곡			
	하사창동 무명사지	하사창동 아랫마을		석물	
	샘재 무명사지	천현동 샘재		아편, 도편	
	천현동 무명사지	천현동		토기편	
	검단산 배알미 무명사지	검단산 배알미			
	천현동 무처골 무명사지	천현동 중터마을		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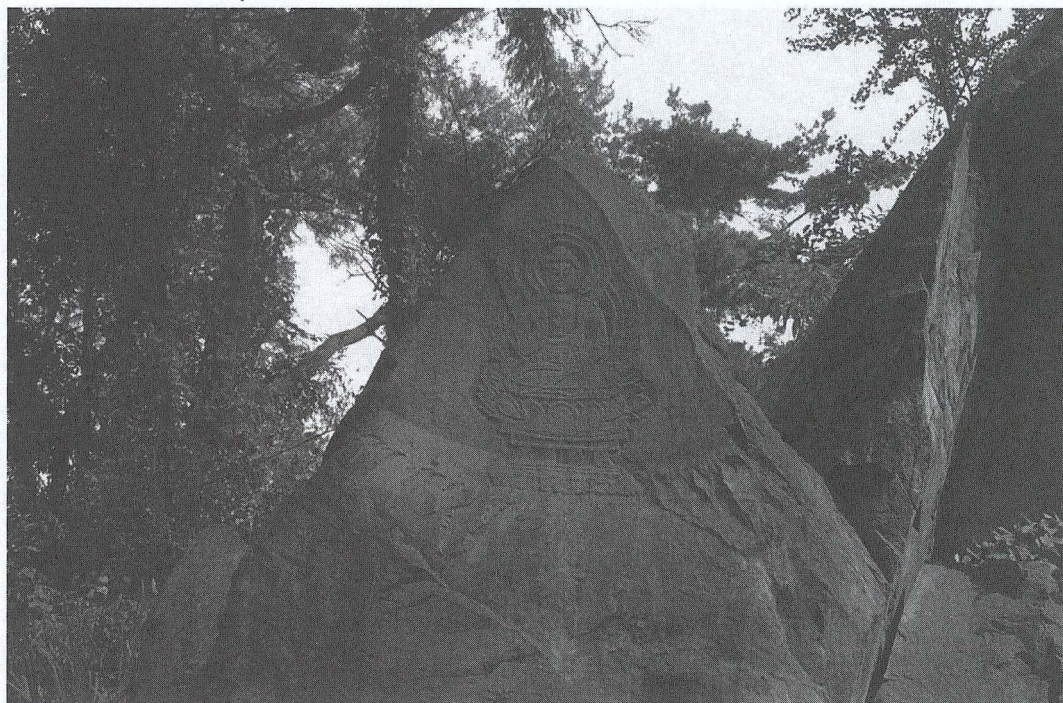
1. 태평2년명 마애약사불좌상

● 소재지

하남시 교산동 55번지

● 찾아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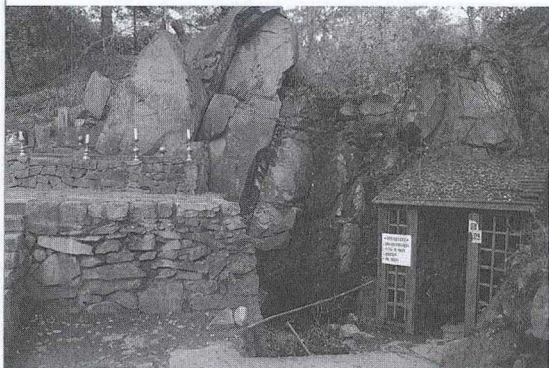
하남시내에서 고골사거리로 간 후 우회전하여 직진해서 1.5km 정도 가면 도로 우측에 안내판이 있다. 그곳에서 좌회전하여 700여 미터 들어가면 된다.



↑ 태평2년명 마애약사불좌상

선법사 경내에 태평2년명 마애약사불좌상 위치하고 있는데 선법사의 본래의 사찰명은 '신광사'였는데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인수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개명하여 부르고 있는 사찰로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다. 경내에는 '태평2년명 마애약사불좌상'(보물 981호)이 있는데 1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사찰이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선법사 약수터 옆 삼각형 바위에 조각된 대좌와 불신 및 광배를 구비한 이 마애불은 대좌 즉, 하대석에는 복련이 조각되었고, 중대석은 짧은 4개의 기둥으로 처리하였다. 상대석에는 단판 봉엽의 양연이 불상 무릎을 감싸며 조각되어 있다. 광배는 3중의 원형 두광과 신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변에는 화염문이 조각되었다. 불상은 좌상으로 소발의 머리에는 육계가 있고, 가름한 상호에는 눈, 코, 입과 귀가 표현되어 있다. 법의는 우견편단으로 왼쪽 어깨로부터 가사자락이 흐르고 있으며, 팔목에서 내려온 의문이 왼쪽 무릎을 덮고 있다. 오른손은 가슴까지 올리고, 왼손은 복부에서 약합을 들고 있어 불상이 약사불임을 보여준다. 불상의 오른쪽에 '태평이년정축칠월이십구일'이란 명문이 있어 불상의 조성연대가 고려 경종 2년인 977년임을 알려준다. 불상 오른쪽에도 큰 바위가 있고 바위표면이 정으로 쳐서 넓은 면이 깊숙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오른쪽 바위면에도 불상이 조각되어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파서 옮겨갔다고 한다.



↑ 약사불과 약수터



↑ 선법사 극락보전

2. 약정사지(藥井寺址)

● 소재지

하남시 향동 택마니

● 찾아가는 길

항동 마을회관에서 서쪽으로 금암산로를 따라 약 500m 거리에 있는데, 현재 확인된 절터의 면적은 1000평 정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약정사는 한산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범우고(梵宇攷)』에서는 사찰이



↑ 약정사지

이미 폐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기록을 미루어 보아 약정사는 두 책이 편찬된 시기 사이의 어느 시기에 폐해졌음을 알 수 있고, 수습된 기와조각들과 생활용품으로 쓰인 듯한 청자조각들로 미루어 약정사는 고려시대에 창건한 사찰로 보이며 그 뒤 조선 시대까지 여러 차례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약정사터에서 수습된 기와조각들의 무늬로 물고기 가시모양의 어골문(魚骨紋), 격자문(格子紋), 민무늬가 있다. 그밖에도 토기, 청자, 백자 같이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조각들이 많이 수습되었다. 약정사에는 원래 약사여래좌상(藥師如來坐像)이 있었는데, 이 약사여래좌상은 머리는 파손되어 사라지고 몸 아랫부분만 남아 있으며 지금은 경기도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 이 약사여래좌상은 백색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데, 제작연대는 신라 불상(佛像)으로 보고 있는 법화암(法華庵)의 약사불(藥師佛)과 돌의 재질과 몸체의 조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조성연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길이 35m, 높이 2~3m를 쌓아 올려 조성한 돌 축대 위에 자리한 법당자리에는 아직도 주초석(株礎石)이 일부 남아 있다. 주춧돌로 미루어 추정되는 법당자리 뒤편에는 천연의 암반 위를 약 1.10m~1.40m 정도 음각으로 파낸 바위가 있는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약정사에서 사용하던 우물은 절터에서 산 위쪽으로 50m 지점에 있었는데, 토사가 쌓여 우물자리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약정사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남지역이 광주목이었을 당시 『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한산의 여섯 사찰 가운데 하나였다.

3. 법화암지(法華庵址)

● 소재지

하남시 상사창2동 법화골

● 찾아가는 길

상사창2동 법화골에서 봉암산 방향으로 실개천을 따라 해발 400m 정도 오르면 법화암 터가 있다.

현재 법화암 터에는 초석 일부와 화강암의 석탑조각들이 남아 있다. 남아 있는 석탑 조각은 옥개석(屋蓋石) 부분으로, 3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풍경(風磬)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옥개석은 아담하여 큰 규모의 석탑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조각의 양식으로 미루어 조선중기 이후의 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된 기와조각들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민무늬와 타날문, 어골문 등 다양한 무늬가 있다. 수습된 토기의 형태로 보아 이곳에 적어도 고려초에서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사찰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법화암지에 있던 불상은 약정사지에 있던 불상과 비슷한 재질과 조각양식을 보인다. 이 불상도 역시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없애 주며 재앙을 소멸시켜 주는 약사여래좌상이다. 약사여래불은 결가부좌(結跏趺坐)를 하고 있는데, 높



↑ 법화암지 부도

이는 58cm, 너비는 53cm 정도이다. 법화암지 약간 왼쪽 위로는 미완성으로 보이는 석조(石槽)가 있는데 이것은 물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 같다.

터 아래쪽으로는 축대가 몇 군데 쌓여 있어 토사를 막아주고 있고, 뒤쪽으로는 병풍처럼 큰 바위가 둘러서 있어서 예전에는 법화동 총석정(叢石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절터 아래쪽 30m 지점에 밭처럼 약간 평평한 터에 3기의 부도가 서 있다. 법화암 부도 3기 가운데 종(鐘) 모양으로 서 있는 부도에는 탑신(塔身)에 ‘평원당 선백대사(平源堂善伯大師)’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그러나 부도의 주인인 선백대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이 부도를 바치고 있는 기단은 자연암반에 간략하게 8각으로 만든 것인데, 이 기단에는 ‘매운당(梅雲堂)’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기단과 부도의 주인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튼 선백대사의 부도 모양은 종 모양보다 오히려 배흘림기둥에 가까운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상륜부(上輪部)에는 염주만이 간소하게 조각되어 조선후기의 부도로 추정하게 한다. 이 부도의 높이 1.4m, 최대둘레 2.2m 석종형(石鐘型) 부도로는 상당히 큰 편이다. 대사의 부도 왼쪽에는 사각의 간소한 기단 위에 높이 93cm, 최대 둘레 1.73m의 부도가 서 있는데 이 두 부도의 주인은 알 수 없다. 이 부도는 법화암이 폐사(廢寺)된 뒤 도굴꾼들이 부도 안에 모셔져 있던 사리와 장엄구(莊嚴具)들을 절취하기 위해 쓰러뜨려 놓아서 1969년경 다시 세워 놓은 것이다.



↑ 법화암지

4. 신복선사지

● 소재지

하남시 향2동

● 찾아가는 길

약정사지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500m거리에 위치하는데 면적은 800여 평이다.

절터 일대는 지도상에 “신부골”로 명시되어 있다. 금암산은 불교유적지라고 불려도 될 만큼 많은 사찰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금암산 일대 대부분의 사찰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폐사되어 버렸으나 많은 기와조각들과 토기조각들이 남아 있다. 그 가운데 춘궁동 주민들이 송파장이나 송파나루를 건너 한양으로 들어가고 길손들이 늘르니고개를 넘나들던 곳에 신복선사터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 이곳의 지명은 ‘신부골’로 ‘신복선사’라는 절이 있었음을 짐작케 해줄 뿐이다. 신복선사지에는 머리가 없는 불상이 십여 년 전까지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절터임을 알려주는 석물(石物)조차도 남아 있지 않고 다만 기와조각들과 청자조각들만이 많이 수습되었다. 또한 기와조각들 가운데는 ‘시주 김(施主金), 시주 전보(施主全甫), 시주 호장(施主戶長) 장이(長李)’라는 글씨가 새겨진 것들이 수습되어 시주를 받아 절을 중수했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신복선사, 봉수사와 약정사는 함께 한산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약정사의 명문기와가 출토된 곳과 함께 신복선사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범우고』에는 이미 폐사된 사찰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 이곡(李穀)의 문집 『가정집(稼亭集)』에 의하면, 신복선사는 고려시대 동지민장총관부사(同知民匠總管府事) 박쇄노을대(朴口口魯兀大)가 중수한 사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5. 자화사지(慈化寺址)

● 소재지

하남시 향2동

● 찾아가는 길

자화사지는 금암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능선을 따라 3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하며 면적은 대략 600여 평이다.

자화사터에는 하남지역 절터 가운데 산에 자리한 사찰로는 가장 오랜 기와조각이 보이는 곳이다. 금암산 가장 높은 봉우리 아래 큰 바위가 많은 곳에서



↑ 자화사지

좌우로 널리 뻗어 내려온 산자락에 자리잡은 곳에 있는데 자화사터에서 수습된 기와조각들은 어골문과 타날문, 민무늬 등이며 청자조각들도 있다. 어골문 기와조각에 ‘자화사(慈化寺)’라는 글씨가 뚜렷이 새겨져 있어 이곳이 자화사터임을 말해준다.

이곳에는 약사여래불이 결가부좌를 하고 있고 현재는 머리와 두 팔이 잘려 나간 채 파손되어 있다. 가사는 한쪽 어깨만을 두른 채 입고 있는 상태로 왼쪽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조각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곡선과 부드러움을 보여준다. 왼손에 약함(藥函)을 들고 있어 약사여래로 추정되나 오른손의 모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手印)인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어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또 하나의 불상이 있는데 이 불상은 선정인(禪定印)을 하고 결가부좌를 한 좌상으로 선정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 앉아 깊은 선정에 잠긴 것을 표현한 것으로 석가모니 불상으로 여겨진다.

6. 서양사지

● 소재지

하남시 상사창동 샘골

● 찾아가는 길

샘골마을에서 봉암산 바람재 가는 방향에 있는 절터로 문헌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지명총람(韓國地名總覽)』에 서양사는 샘골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아마도 주민의 구전(口傳)에 의한 기록이 아닌가 생각된다. 절터는 100여 년 전부터 논으로 경작되어졌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굴착기로 논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석물과 주초석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땅 위로 모습을 나타낸 수많은 기와조각들은 다시 땅 속에 묻히고 말았다. 지표면에서 볼 수 있는 기와조각들은 주로 타날문과 어골문이며 토기조각들도 일부 보이는데 고려시대 절터로 여겨진다.

7. 일명사지(일명복단사지)

● 소재지

하남시 교산동

● 찾아가는 길

광주향교에서 북동쪽으로 6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하며 해발고도는 45미터로 교산동을 에워싸고 있는 객산 북쪽능선의 최북단에 있다.

면적은 1000여 평 이상인데 최근 축사건물을 철거하던 중 지표면이 훼손되어 많은 양의 유물이 드러나 있다. 지표조사에서는 탑의 상대갑석 1기와 평평한 석재 1기, 탑옥 개석 파편과 복발이 발견되었다. 또한, 연화문 수막새와 일휘문 암막새, 「大」자 명문와 등이 수습되었고 평기와류중에는 사선문, 격자문, 어골복합문 등이 시문된 것도 있다. 토기, 도기류는 상대갑석 주변과 진입로쪽에 드러나 있다.

8. 금암산 일명사지2

● 소재지

하남시 광암동

● 찾아가는 길

광암동 상수원지에서 향교로 넘어가는 도로를 따라 100여 미터 오르면 도로 오른쪽 옆 금암산 언저리에 있다.

이곳은 원래의 사찰명은 알려지지 않았고 일명 ‘개두사지’라고도 불린다. 절터는 산의 경사면을 평탄화하여 건물이 자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건물이 입지할 만한 곳 두 군데 정도가 남아있다. 건물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기와 등의 유물이 드러나 있고 초석이나 석물들이 놓여있다. 수습되는 유물은 주로 사선문이나 격자문이 시문된 기와와 격자문이 타날된 토기들이 많다. 이것들의 지형적인 위치로 보아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9. 하산곡동 일명사지

● 소재지

하남시 하산곡동

● 찾아가는 길

중부고속도로 동서울톨게이트에서 남동쪽으로 약 1km 이동하면 ‘절터골’ 또는 ‘청담골’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객산 동쪽 능선의 끝자락에 위치하며, 마을에서 서쪽으로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능선의 중턱에 작은 규모의 절터가 있다.

절터의 면적은 200여 평이고 두 곳에 축대의 일부분이 남아있다. 가장 긴 축대의 방향은 남북쪽으로 길이 10m, 높이 1.5m 정도이다. 북쪽 경사면 아래 계곡에는 우물터가 있는데 평면이 원형이고 석축으로 둘러져 있으며 사용되지 않아 깊이가 얕다. 절터 주변에는 기와가 산재해 있는데 대부분 어골문 기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 사찰의 중심 시기가 고려시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10. 춘궁동 동사지

● 소재지

하남시 춘궁동

● 찾아가는 길

고골사거리에서 서하남IC 방향으로 가다보면 고골저수지 끝나는 부분 좌측에 동사지



↑ 춘궁동동사지 오층석탑과 삼층석탑



↑ 동사지 주춧돌

호)이 나란히 서있어 금당이 쌍탑을 마주하고 남동향으로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사지는 고려초기 규모가 큰 절터로서 가람배치나 건축양식이 독특해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한편, 출토된 유물 중에는 고식의 기와들도 있어 창건시기가 통일신라시대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안내판이 있다. 그곳으로 좌회전하여 500여 미터 들어가면 된다.

동사지(棟寺址)는 이성산 남쪽 고골저수지 옆의 금암산 북쪽기슭에 자리잡은 절터로서 현재는 수년 전 새로 지은 '다보사'가 들어서 있다. 금당터는 현 대웅전 주변에 있는 넓은 평지로 약 2m 높이의 기단 위에 거칠게 다듬은 사각 초석이 줄지어 있으며, 중앙에는 본존불의 팔각대좌 하대석이 있다. 하대석은 직경이 5.1m이다.

이곳은 사적 352호로 1988년 동국대에서 발굴조사 하였는데 발굴과정에서 금동불상과 막새, 명문기와, 기면와, 청동 불기류, 치미 등이 출토되었고 금당터 동편에는 춘궁리 오층석탑(보물 12호)와 삼층석탑(보물 13

11. 춘궁동 마애불

●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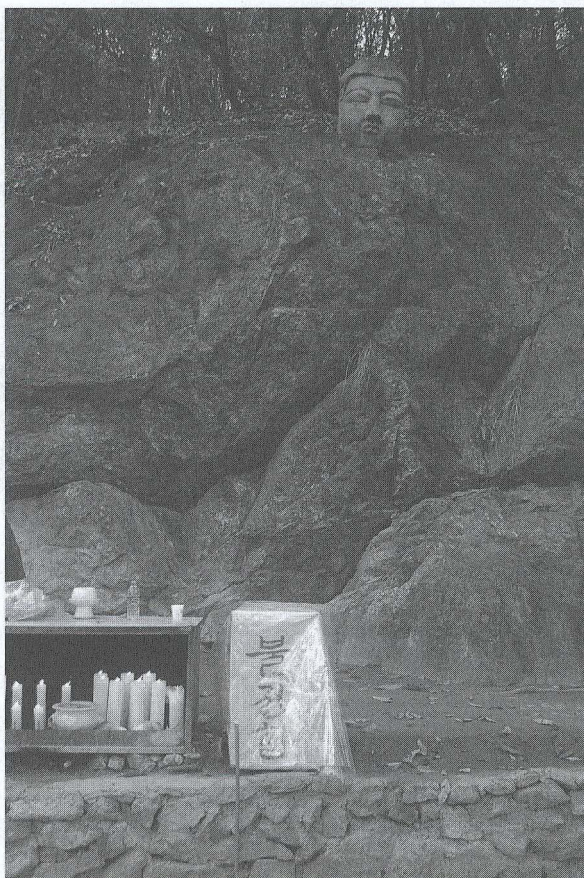
하남시 춘궁3동

● 찾아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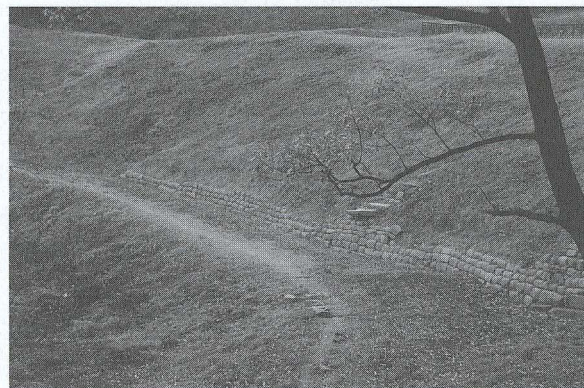
고골사거리에서 서하남IC 방향으로 가다 보면 고골저수지 끝나는 부분 좌측에 미륵사 안내판이 있다. 그곳으로 좌회전하여 300여 미터 들어가면 미륵사라는 작은 개인 사찰이 있고 그곳에서 산으로 50여 미터 올라가면 된다.

미륵사는 작은 집과 하우스집으로 되어 있는데 김광주 보살이 관리한다. 김보살은 경북 울진군이 고향으로 17살에 신이 내려오며 34살 때 하남으로 이주하여 남한산성 정상에서 기도를 하며 산을 찾아다니다가 이곳에 있는 미륵불을 발견하고 터를 잡았다. 이곳은 전에도 인근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기도를 다녔던 곳이나 1980년대 초 김광주 보살이 이곳에 천막을 치고 기도를 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1987년 11월 이곳에서 기도를 하던 김보살의 꿈에 흰 수염을 한 산신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기도하던 토굴에서 한 발치 나가 한길을 파라는 선몽을 받고 땅을 파니 금동부처님 두 분이 나와 박물관으로 보내졌다.²⁸⁾

하남지역은 백제시대 초기 도읍지가 있던 곳으로 이성산 주위에는 산성이 있었으며



↑ 춘궁동 마애불



↑ 이성산성 성벽

28) 김덕목, 『전국의 기도터와 굿당(1권)』, 한국민속기록보존소, 2003, 157쪽



↑ 이성산성 저수지

의 석축산성이다. 해발 209.8m의 이성산 정상부에 능선을 따라 쌓은 높이 4~5m, 둘레 1925m의 성이다. 1988년에 한양대 박물관이 발굴조사를 실시했는데, 특히 이곳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단으로 추정되는 팔각 건물터가 발굴되어 주목을 끌었다. 춘궁동 절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불두(佛頭)는 당초 마애좌불로 조성했던 듯 한데 어깨 아랫부분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마에 상처가 나 있으나 얼굴은 두툼하고 잘 생겼다. 이 바위 밑에는 굴이라고 할 수 없는 틈이 있는데, 여기서 근래 백제시대 탄신불이 발견되어 박물관으로 옮겼다고 주민이 전했다. 이곳 역시 작은 암자였다는 설이 있다.”²⁹⁾

초기 백제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남아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발견된 금동부처님과 미륵불도 백제시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문화유산답사회’에서 소개한 이 지역 일대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성산성은 하남시 춘궁동, 초일동, 광암동의 3개 동에 걸쳐있는 이성산에 쌓은 삼국시대

〈하남시 참고자료〉

- 『전통사찰총서3 - 경기도 I』(사찰문화연구원, 1994)
- 『기내사원지』(경기도, 1988)
- 『경기도불적자료집』(경기도박물관, 1999)
- 『역사도시하남』(하남시, 2001)
- 『문화유적분포지도』(하남시·세종대학교 박물관, 2005)
- 『문화유적총람』(문화재관리국, 1977)
- 『전국의 기도터와 굿당(1권)』(김덕목, 2003)
- 『경기남부와 남한강』(한국문화유산답사회, 1998)

29) 한국문화유산답사회, 『경기남부와 남한강』, 1998, 30쪽